對 外 秘

#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 정례화 필요성 검토

2016. 7. 기획조정실

## 1. 검토 배경

▣ **법관 사회 내부 여론에 대한 점검 필요 時點임**

● 법원문화개선위원회 공백기

- 5. 20. 정기회의 종료 ⇨ 9. 26. 임시회까지는 의견수렴 및 소통기능 미미함

- 법원문화연구반이 활동 중이나, 일종의 'TF' 내지는 '선발된 인원들만의 회의' 정도로서의 의견수렴 효과가 있을 뿐임

● 행정처도 내부 소통보다 20대 국회 대응에 진력해옴

- 업무보고 및 결산, 상임위 확정에 따른 입법 전략 수립 등 원구성 초기단계 기본대응 완료 ⇨ 9월 정기국회 전까지는 행정처 역량에 다소 여유 있음

● 각 법원 하계휴정기 및 하반기 인사이동

- 법원별 구성 일부 변화 등으로 여론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여지 있는 시점

▣ **2015년 비공식 전국 순회 간담회 성공 노하우 활용 필요**

● 2015. 8. 6. ~ 8. 13. 단독 및 배석판사 상대 총 8회 실시

- 상고법원 및 사실심 충실화에 관한 오해 불식 및 정보 제공, 제도 도입 필요성 등에 관하여 스킨십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함

● 확대 실시 ⇨ 2015. 9. 17. ~ 10. 5. 총 14회 실시

- 1차 간담회 호평에 따라 대상 법원 확대 및 부장판사로 대상 확대

▣ **최근의 법관 여론을 살펴 2015년 상황과 대비한 후,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간담회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및 실시방안 검토 필요**

## 2. 법관 사회 여론 동향 및 간담회 필요성

### 가. 최근 법관 사회 주요 이슈

▣ **최○○ 사건 외에 법원이 언론, 비판의 중심에 선 사례 많지 아니함**

● 전년도 같은 시기 여러 이슈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것과 큰 차이

☑ 2015년 상반기부터 8월까지 논란되었던 주요 이슈
▶ 박○○ 대법관 제청, 경력법관 선발시 국정원 신원조사 파문, 상고법원 총력 추진 관련 비판, 원세훈 전합체 13 대 0 논란, 故 이○○ 판사 사망, 사법신뢰도 세계 최처 수준, 한명숙 판결 관련 정치적 거래說, 전 대법관 아들 초임지 특혜 논란 등
▶ 특정 사법행정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, 법관 임용, 대법관 제청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하여 여러 차례 큰 논란 있었음

▣ **최○○ 사건에 대한 반응 ⇨ 사기 저하 속에서도 약간의 안도감**

● 상식을 넘는 고액 수임료, 전관예우 비판 고착화, 판결의 공정성 훼손, 그에 따른 공정성 강화 조치 시행 등으로 사기 저하 및 자괴감 불가피

☑ 네이버 여성 법관 전용 카페 유스티티아 게시글(2016. 5.)
▶ '요즘 이숨투자사기 사건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보면, 참 답답하다. 법원이, 재판이 가해자와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보호하고, 피해자에게는 최소한의 구제만을 해준다는 또는 그마저도 안해준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자신있게 아니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다는 자괴감이 든다
▶ 최○○ 변호사 수임사건 담당 재판부에 여성법관이 많다는 경향신문 기사 관련
- 너무 화가 난다는 댓글 다수.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적절한 관계가 있을 듯 암시한 것에 대한 비판
▶ 육아·생활정보, 인사 정보의 교환이 중심이 된 위 카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이 게시되고, 댓글이 달리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었음

● 다만, 금품수수나 향응접대 등이 추가로 드러나지 않는 데 대하여 그나마 다행이라는 안도감도 상당함

☑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단독판사의 심정
▶ 이숨투자 대표에 대한 1심 4년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된 것은(최○○ 부장) 누가 봐도 위험한 결론이었기 때문에, 이번 사태 내내 그에 관한 구체적인 비위가 드러날까봐 정말 불안해서 주시했는데, 문제없는 것으로 넘어가게 돼 다행이다

## ▣ 대법관 제청 관련 ⇨ 비판적 법관들도 공개 반발은 어려운 상황

● 이○○ 대법관 후임 관련 **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관심**이 컸음

- ① 대법원 구성의 획일화·보수화에 대한 강한 비판, ② 여소야대로 인하여 국회 동의 주도권을 쥔 야당의 성향, ③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이○○ 대법관 후임, ④ **사법행정(담당 법관)에 대한 강한 불신**과 견제

> **☑ 법관 익명 카페 게시글 (2016. 5.)**
>
> ▶ (법원문화개선위원회 안건 수렴에 관하여) 왜 부장-배석간 문화가 문제되나?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권력서열주의 문제이다. 헌법에서 천명한 **법관의 독립에 가장 큰 걸림돌은 부장-배석 문제가 아니라, 대법원장과 대통령, 즉 행정권력과의 문제**이고, **대법원장 1인 인사독점체제하에서의 법관 임용, 행정의 문제**이다. 이 문제를 차치하고 **깃털의 문제만을 건드리는 나 자신이 한심스럽다**.
>
> ▶ 사법행정이 재판업무보다 훨씬 중시되고 **행정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법관으로서 중시되는 반헌법적 현실** …
>
> ▶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판사가 최고 엘리트라고 하는데 동의하나? 법관의 꽃 고등부장? 기수별 선두그룹? 이런 식의 **법관서열화**가 당연시되고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. **앞으로는 행정처 출신의 대법관 임용을 반대하고, 평생 재판 일선에서 근무한 "정통법관"만을 대법관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**는 생각이다.
>
> ▶ **행정처 출신의 극소수가 사법행정권을 독점하면서 재판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현실**은 판사회의의 유명무실화로 인하여 가능한 것입니다.
>
> ▶ 현행 법령에 따라 가능한 방법 중 **대법관후보나 대법원장 후보를 실질적인 판사회의를 통해 추천하는 것을 실현**한다면 진정으로 법관의 독립 실현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고 봅니다.
>
> **☑ 인권법 커뮤니티 소모임 '인사모'의 5월 주제가 "법관의 독립과 사법행정'이었음**

● 제청결과에 대한 반응 ⇨ 만족하지 못하나 비판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

- **교수 출신, 학문적 위상, 전북 출신, 온화한 인품 등**으로 인하여 비판세력으로서도 크게 문제삼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임

> **☑ 진보 성향 언론의 미세한 입장 변화**
>
> ▶ **제청 다음날** 한겨레와 경향 모두 '교수 출신 민법 권위자'라는 의의를 평가하면서도 '서울대, 법관 경력, 50대 남성'으로 대법관 다양화 효과 미미하다는 평가 게재
>
> ▶ **한겨레는 이틀 후** '후보자가 과거 **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, 박정희 정권을 유신독재로, 국가보안법을 반민주악법으로 각 표현한 행적이 눈길을 끈다'는 기사 송출**
>
> - 단 이○○ 법조팀장이 후보자가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인 점 등에 관해 비판기사 준비

중

☑ 진보 성향 한○○ 교수의 평가 (제청 당일 밤 페이스북)

▶ [인격] 모두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을 외유내강의 성품, [학문] 착실하고, 해박함

▶ '보수적이라고 세평이 나오는데, 그렇지 않다. 개방적이다.'

▶ "이번 대법관 후보 참 잘 뽑았다". 연령상으로도 후보군 중 가장 젊은 편인데, "대법관 다양성"에의 여론도 그의 선정에 일조한 듯 하기도 하다.

▶ 사법부로서는 크게 잘 된 일이란 점에 한점 의혹이 없다. 난 김대법관의 판결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이다.

☑ 선출을 통해 취임함으로써 법관 여론 주도 명분을 가진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의장(박○○ 판사)의 경우 ⇨ 표면적으로 언급 없음

▶ 최근 서울중앙 단독판사들과의 식사자리 등에서 대법관 제청 등에 관하여는 일체 언급 없었음 ⇨ 자신이 추진 중인 '좋은 재판 연구회' 활동에 집중

- ※ 박 판사의 경우 학생운동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'초임지가 서울중앙임에도 재판연구관이 되지 못한 것때문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측면이 크므로, 단독판사회의 의장 출마시 슬로건인 좋은 재판, 행복한 판사 관련 활동에 집중할 것'이라는 평 있음

☑ 경향 신문 움직임 주시할 필요

▶ 경향은 최근인 7. 13.에도 공무원단체가 실시한 다면평가를 근거로 '대법원장 39점' 등과 같은 자극적 기사와 사설을 게재함

- 공무원단체측 확인결과 현재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희망하는 노조가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⇨ 진보 성향 법관이 경향에 제공하였을 것이라는 분석

- 경향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하여 문제제기에 나서지 않을 경우 법원 내 비판적 그룹도 반대 견해를 표면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임

▣ **다수 법관의 최대 관심사는 (지방근무, 평정 등 인사, 복지 문제 외에) ① 부장-배석 관계, ② 법관의 위상·사기 저하로 인한 무력감에 있음**

● 법원행정처장 명의 6. 16.자 **재판 공정성 강화 방안** 코트넷 공지글 ⇨ 한 달이 경과하였음에도 조회수 단 917건에 불과

- 여론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감한 주제였음에도 법관 사회 관심 미약

● 법관들의 가장 **진솔한 정서가 표출되는 법관 익명 카페**의 분위기 변화

- 2015년에는 사법부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·사회적 이슈에 수십 개의 댓글이 자주 달린 반면, 2016년에는 1~7개 수준에 그치고 있음

- 부장과 배석 관계(부장의 부당한 행동 방지책 등)나 개업제한 이슈에 대하여는 여전히 수십 개의 댓글이 활발하게 달리고 있음

▣ ⇨ **결국 사법행정·대법원이 직접 이슈·불만의 중심에 있다기보다는,**

법관으로서 직무·생활·미래에 대한 불안·불만에 무게중심이 가 있음

## 나. 2016년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 필요성

▣ 1 **2015년 대비 행정처 주도 특급 정책 이슈는 감소 ⇨ 그럼에도 여전한 '소통', 특히 傾聽의 필요성**

● 2015년 간담회는 법관들 입장에서 ① **'법원행정처의 일방적 필요에 의한'** ② **'주입식 설명을 위한 행사'로** 받아들일 여지가 큰 상황이었음

- 그럼에도, 소규모 인원·식당에서 만찬을 곁들인 대화 등의 편안한 형식을 통해 **거부감을 최소화**하고, '인위적 행사라도 행정처와의 **소통 자체가 반갑다'** 는 반응 등으로 인해 **긍정적 평가 가능**했음

● 행정처 **당면 과제가 없더라도 지속적 소통 노력** 필요

- '행정처는 **자신들이 필요한 경우에만 소통을 내세운다'** 는 **선입견**을 바로 잡을 필요성이 큼

- 특정 사법정책 이슈를 내세울 필요가 없으므로 오히려 **설명·설득보다 전면적인 경청에 방점**을 둘 수 있는 상황임

● ⇨ 행정처 **불통 이미지 해소·소통 이미지 강화**

▣ 2 **비공식 소규모 간담회의 효용이 예상보다 큼**

● ① **정보와 정서를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**

- 주요 정보 전달 창구로 활용되어 온 코트넷 공지 및 안내 메일 등 ⇨ **다수 법관의 무관심으로 조회수 및 피드백 매우 저조함**

- 법원장을 통한 간접적 정보 전달·전파 ⇨ 행정처가 **직접 소통하고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**

- 문서로 공유하기 어려운 법관으로서의 동질감 및 정서적 공감대 형성 가능

☑ **2015년 시행 결과 드러난 예상 외의 성과**

▶ 본래 목적은 상고법원 관련 오해 해소, 정확한 정보 전달, 내부 관심도 및 공감대 형성이었음 ⇨ 이를 넘어서 **행정처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내지 경원시하는 태도 해소, 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 향상 등에도 부수적 효과** 있었음

- 소규모 쌍방향 소통과 긴밀한 스킨십으로 인해 가능한 효과임
- 20○○년 ○○지법 기획법관의 경우 종전에는 사법행정 분야에 전혀 무관심하다가, 작년 간담회 참석으로 사법행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, 올해 기획법관을 맡아 ○○ 민사재판장 동요 사태 등에서 역할을 잘 수행함 ⇨ 사법행정 적합 인재 발굴에도 도움

▶ 일부 법관들의 편향적 정보 취사선택 문제 해소

- 코트넷으로 상세하게 공지하여도 본인이 원하는 정보만,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, 익명 카페 등에 나타난 비공식적 정보를 더욱 신뢰하는 성향 있음 ⇨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시간이 충분한 비공식 간담회에서는 그와 같은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

▶ 사법행정 성과 및 사법부 발전사항 홍보에도 활용 가능

- 글로는 쉽게 하기 어려운 홍보도 술자리의 분위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행가능함

● ② **사법행정역량 투입 규모 대비 성과** ⇧

- 부장심의관 및 평심의관 **1인당 최대 2회 정도의 저녁 시간 투입**
- 2015년 전국 법관의 9.6%에 달하는 273명(법원장 제외)이 참석 ⇨ 2016년 유사 규모로 시행시 누적인원으로 전국 법관의 약 20%와 직접 소통하는 결과

● ③ **일선 법관들의 만족도** ⇧

- 앞서 본 **긴밀한 소통으로 인한 여러 장점 외에** 특히 지방권의 경우 먼 곳에 출장간 것만으로 **정보적·정서적 소외감 및 무관심을 완화**시키는 효과 있음
- **젊은 법관들의 경우 선배들과의 대화·교류의 장**으로서도 의미 있음

● ④ **법관 사회 여론 또는 법원 조직 및 재판운영상 문제점 등의 선제적 파악을 통한 적기 대응 가능**

- 대강당 등에서의 설명회와 달리 다양한 주제에 관한 대화를 통해 진솔한 여론, 비공식적 애로사항 등을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음

## ▣ 3 사법행정위원회와 상호 보완 및 선순환 시스템 형성 필요성

● 사법행정위원회 공식 출범

- 일선 법관들이 직접 사법행정 자문 과정에 참여한다는 큰 장점
- 반면, 위원회 제도의 내재적 한계상 **위원으로 선출되지 아니한 법관들의 무관심** 초래 가능성 있고, **'위원회 하나 만들고는 소통 소력을 다했다는 것이냐'는 비판** 제기될 우려도 있음

● **행정처의 직접 소통 수단 별도로 필요 ⇨ 사법행정위 보완 및 선순환**

## 3. 2016년 간담회 착안사항

▣ **전년도의 소규모 형식 등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되, 아래 사항 고려**

▣ **대법원장님 임기 중 마지막 간담회 가능성 ⇨ 소프트한 주제가 적정**

● 대법원장님의 임기 중 업적·대표적 키워드 및 브랜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임 ⇨ 법관 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지지 여론 구축 필요

- 전 대법원장님의 경우 '공판중심주의, 구술심리, 전자소송, 법관인사 이원화' 등의 브랜드 있음

- 현재는 **'평생법관제, 국민과의 소통 강화, 분쟁의 종국 해결기능 강화** (사실심 충실화)' 등이 있으나, 법관 사회와의 소통 측면에서 문제제기하는 일각의 목소리도 상당함

● 법관의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전면에 내세우기 보다는 **법관들의 애로사항, 직업적 고민 등에 귀 기울이는 접근 방법** 필요함

- 복지 관련 이슈는 물론, 부장-배석간 문제, 법관의 사회적·업무적 위상 약화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청취

-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사법부 수장이 이를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시그널을 줄 필요 있음 ⇨ 현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법관 사회 평이 좋지는 아니함

☑ 법관 익명 카페 게시글

▶ 대법원장님의 말씀 등에 대한 반응
- 모든 판사가 자신의 아래 직원인가요?
- 법원에서 가장 소통이 안 되시는 분
- 판사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느껴졌고, 너무 관료주의적이라 당황했다
- 전임 회장님과 현 회장님 사이의 간극이 크게 와 닿는 것 같다

▶ 이에 대하여 '분위기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인 편차가 크다. 정보가 없어서 오해하고, 과잉 내면화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. 그래서 더 소통이 필요하다'는 댓글이 문제상황을 적확히 진단하고 있음

● **최○○ 사태 및 사법 신뢰 악화**를 주제로 하더라도 사법신뢰 제고

필요성보다는 그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식의 접근방법 필요

### ▣ 배석판사들의 대거 참여 유도 필요

- 2015년 간담회는 상고법원 관련 사법부 one-voice 필요성이 주된 고려사항 ⇨ 언론 및 외부 접촉이 활발한 단독판사 및 부장판사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음

- 2016년 간담회는 경청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만큼, 현재 법관 조직의 가장 말단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, 법관 조직에 대하여 불만이 가장 큰 배석판사를 대거 참여시킬 필요 있음

☑ 법관 익명 카페 배석판사 관련 게시글
▶ 배석판사는 판결쓰는 기계인가
▶ 사법부의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
▶ 우리 기수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

## 4. 구체적 일정 등 로드맵 ⇨ 기획조정실 별도 보고